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90)

지리불여인화

地利不如人和

지리적 유리함은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

권중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최근 미국이 이란을 타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란은 다시 '위기의 한복판'에 섰다. 상대의 핵심 시설을 때리면 전쟁이 끝날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은 대개 그 반대다. 보복과 재보복이 이어지면서 항로와 에너지 공급은 즉시 불안해지고, 시장은 과잉반응하며 주변국의 계산도 복잡해진다. 민생과 여론은 공포와 분노 사이에서 출렁인다.

이럴 때 사람들은 "방어시설이나 사람이냐"를 묻기보다, 누가 더 센 무기와 더 깊은 지하 벙커, 더 험한 산맥을 가졌는지를 먼저 따진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정말 결정적인 것은 방어선의 높이가 아니라, 그 방어선을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과 지휘의 질서가 아닌가 싶다. 시설은 '있다'고 끝나지 않는다. 운영하고, 점검하고, 변화에 맞게 고치고, 무엇보다 서로 믿고 움직일 때 비로소 힘이 된다.

맹자는 전쟁의 승패를 "천시(天時)·지리(地利)·인화(人和)"로 설명했다. 흔히 천시와 지리는 '조건'이고 인화는 '결과'처럼 보이지만, 역사는 인화가 조건을 지배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 준다. 천혜의 지리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면 성(城)이 되고, 제대로 된 사람을 잃으면 길이 된다.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 진(晉)이 오(吳)를 멸망시키는 장강(長江) 전선에서의 전투이다. 이 전투의 승리로 진(晉)은 다시 천하통일의 위업을 달성하니까 말이다. 전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랬지만 이 시기에 오(吳)에게 장강은 그 자체가 성곽이었다. 북과 남을 완전히 갈라놓을 만큼 넓고 깊었으니 "천연 방어설비"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촉한이 망한 뒤에 오(吳)가 십수 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그 강이 북쪽의 진군(晉軍)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먼저 배경을 보자. 사마씨(司馬氏)는 위(魏)에서 권력을 장악한 뒤 263년에 촉한을 멸망시켰고, 265년 사마염(司馬炎)이 선양을 받아 진 왕조를 열었다. 통일을 꿈꾸는 새 왕조가 남쪽 오(吳)를 치지 않을 리 없었다. 그러나 정작 오(吳)를 정면으로 밀어붙이지 못한 세월이 길었다. 그 이유가 바로 장강이다. 강 하나가 남북을 갈라놓으니, 진이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강을 건너는 순간 취약해졌다. 반대로 오(吳)는 강을 믿고 버티면 되는 듯 보였다. 지리적 유리한 조건이 주는 '안도감'이 사람의 경계를 무디

게 하는 법이다. 지리는 방패가 되지만, 그 방패를 든 팔이 풀리면 방패는 바닥에 떨어지고 만다.

진은 그 지리를 깨기 위해 '사람의 준비'를 먼저 했다. 전통적인 육로군을 갖추는 한편, 전에는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이번에는 용양장군(龍驤將軍) 왕준(王濬)에게 장강 상류에서 거대한 전선(戰船)을 대대적으로 만들게 하여 수군(水軍)을 준비했다. 오(吳)도 맞섰다. 모래사장의 요충지에는 쇠사슬로 강을 가로질러 전선의 하강을 막고, 강물 속에는 길이 1장(丈)이 넘는 쇠말뚝을 촘촘히 박았다. 하지만 장치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가 언제 점검하고, 이상 징후를 어떻게 보고하며, 상대가 관찰한 뒤 순을 바꿀 때 무엇으로 다시 보완할지까지 정해져 있어야 한다. 천연의 강에 인공의 장치를 덧댄 것이니, 오(吳)로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만했다. 그러나 방어는 상대의 창이 어디까지 준비됐는지 끝까지 상상해야 한다. 더구나 장치는 설치보다 유지가 어렵다. 흐름이 바뀌면 다시 손보고, 적이 관찰하면 다시 바꾸어야 한다. 오(吳)에는 그 '경신'의 손질이 부족했다.

왕준은 오(吳)의 방비를 '안 다음'이 아니라, '알고도 더 준비'했다. 사방 100보(步)나 되는 큰 뗏목 수십 개를 만들고, 그 위에 풀로 사람처럼 만들어 갑옷을 입히고 무기를 쥐게 했다. 먼저 그 뗏목들을 흘러보내 쇠말뚝에 부딪치게 하니, 말뚝은 뿔혀 나가고 오(吳)의 숨은 장치는 스스로 무력해졌다. 이어 10여 장(丈)이나 되는 햇빛을 만들어 배 앞에 달고, 수십 아름의 잠기름을 부어 쇠사슬을 녹여 버렸다. 장강은 여전히 장강이었지만, 오(吳)의 방어선은 더는 '장강'이 아니었다. 지리가 강하더라도, 사람의 창의와 실행이 더 강하면 지리는 넘어서는 대상이 된다. 강은 막는 선이기도 하지만, 뚫리면 가장 빠른 공격로가 된다.

여기서 천시(天時)도 작동한다. 정월이라 곧 물이 불어나고 날씨가 더워지면 북쪽에서 내려온 진의 군사가 오래 머물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격을 미루자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전쟁을 지휘한 두예(杜預)는 지체를 거절했다. "쇠뿔도 단김에 뽑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속도를 택한 것이다. 더구나 조정은 왕준에게 건평(建平)까지는 두예의 통제를, 오(吳)의 도읍 건업(建業)에 이르르면 안동장군 왕혼(王渾)의 지휘를 받

으라고 했다. 탁상에서 선택한 질서였지만, 현장에서는 발목을 잡는 조치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두예는 전장의 형편을 알기에 왕준을 억지로 묶지 않았고, 왕준도 물길을 따라 내려오는 군대가 중간에서 멈출 수 없다며 독자적으로 밀어붙였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목적을 공유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다. 인화란 꼭 "사이가 좋다"는 뜻만아니다. 현장을 존중하고,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필요한 때에 결단을 내리는 태도가 인화를 만든다.

반대로 오(吳)의 내부는 그 인화가 무너져 있었다. 방어 책임자 도독 손흠(孫歆)은 "북쪽에서 내려온 여러 군사가 마침내 장강을 날아서 건너 건넌 것 같다"는 식의 편지를 보내며 이미 마음부터 무너진다. 결전을 주장한 승상 장제(張悌)의 말은 장군들에게 외면당하고, 각자 살길을 찾는 분위기가 번졌다. 황제 손호(孫皓)는 폭죽과 가혹한 동원으로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위기에서 필요한 것은 강물의 깊이가 아니라,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함께 결정하는 통일된 마음인데, 오(吳)에는 그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장강이라는 지리는 끝내 오(吳)를 지키지 못했다. 오(吳)의 멸망은 천연조건이 약해져서 아니라, 천연조건을 살릴 사람이 약해져서였다.

각설하고, 오늘의 국제 위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란이 산악지형과 넓은 국토, 그리고 여러 '완충 장치'를 가졌다고 해도 내부의 결속과 통치의 정당성이 흔들리면 방어선은 스스로 갈라진다. 반대로 내부가 단단하면 외부의 타격은 오히려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강대국 역시 힘만 앞세우면 상대의 인화만 키워 주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결국 천시와 지리를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의 선택에 달렸다.

좋은 조건을 가진 기업도 마찬가지다. 현금과 기술, 시장이라는 '지리'가 있어도 위기 때 방향을 잡을 리더십과 현장을 움직일 인재가 없으면 무너진다. 특히 핑시에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책임의 선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위기에선 결정이 늦고 서로 탓만 남는다. 반대로 자원이 넉넉하지 않아도 서로 믿고 역할을 나누며 빠르게 학습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위기가 잦은 시대일수록 '시설 투자' 못지않게 '사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천시도, 지리도 비로소 제 몫을 한다.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단순명료 (單純明瞭)

출 단. 순수할 순. 밝을 명. 밝을 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며 뚜렷하고 분명하다는 뜻. 복잡한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담소자약 (談笑自若)

말씀 담. 웃을 소. 스스로 자. 같을 약. 근심이나 놀라운 일을 당했을 때도 평소처럼 태연하게 웃고 이야기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한자성어입니다. 유래: 삼국지 오서(吳書) 감녕전(甘寧傳)에서 유래했다. 오나라 장수 감녕이 조조의 4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위기 속에서도 평소처럼 담소를 즐겼다는 고사에서 비롯됨.

당동벌이 (黨同伐異)

무리 당. 한가지 동. 칠벌. 다를 이.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같은 무리끼리는 돕고 다른 무리는 배척하는 행태를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후한 말 외척, 환관, 지식인 등이 서로 권력다툼을 벌이며 환관당이 외척을 궤멸시키고 지식인 당을 탄압한 상황

을 두고 생긴 말 정치, 사회 갈등에서 같은 편을 옹호하고 반대편을 무조건 배척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 2004년 교수신문 설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되며 정치권의 당리당락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동당벌이(同黨伐異), 표당벌이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당랑거칠 (螳螂拒轍)

사마귀 당. 사마귀 랑. 막을 거. 바퀴자국 철.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아서다. 또는 사마귀가 수레에 맞서다. 제나라 장공이 수레를 타고 가다 사마귀가 앞을 막자 "만일 사람이려면 응당 무서운 용사일 것이다."라며 수레를 비켜 갔다는 화남자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본래는 사마귀의 용맹을 긍정하는 의미였으나 후대에 와서 무모함을 꼬집는 뜻으로 부정적 뉘앙스로 널리 쓰입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계란격석(雞卵擊石), 이란투석(以卵投石),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등이 있습니다.

당리당락 (黨利黨略)

무리 당. 이로울 리. 다스릴 략. 정당의 이익과 그것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계략을 아울러 이르는 말 정당들이 당리당락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민민복(國民民福)을 지향해야 마땅하다.

2026년 제109회 부호장공파 정기총회 개최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회장 권헌중)는 2월 7일(음력 12월 20일 定日) 오전 10시 30분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안동권씨회관 2층 회의실에서 종원(宗員)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09회 부호장공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역대 회장을 역임하였던 권영건, 권주연 두 고문과 권기창 안동시장,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 권백신 전 코레일관광개발(주) 대표이사가 참석, 자리를 빛내주었다.



권태욱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국민연례, 시조 묘소 및 파조 위패 망배, 중앙을 기점으로 동, 서양쪽으로 갈라서서 서로 마주보면서 "건강하세요" 하면서 삼음례(相揖禮)를 하였다.

권헌중 회장은 인사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축원들을 만나니 반갑기 그지없고 앞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권태욱 국장은 작년 5월 20일 부호장공파 경로잔치를 개최하는 등 10건의 경과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며 권오명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때 안동시장으로 출마할 예정인 권기창 현 안동시장,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 권백신 전 코레일관광개발(주) 대표이사 등 3명이 인사말을 하였으며 시의원에 출마예정자인 권기원씨도 인사말을 하였다. 기타 토의에서 현재 부호장공파가 정기에금을 우체국과 마을금고에 정기에금을 해 놓은 것 가운데 마을금고에 예금해 놓은 것을 다른 금융권으로 옮기는 모 종원의 문의에 거수로 찬반을 물어 그대로 마을금고에 예치해 두기로 결정했다. 파총회 정기에금 예치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으로 하자가 없는 한 만기일까지 거래처를 바꾸지 못한다. 파총회는 정기총회를 마친 종원들에게 꽃가 1상차식 선물을 나누어 주고 권씨회관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양반밥상'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떡과 감골을 먹은 후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2026年 3月 宗報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1.28. ~ 2.24. 총 납부자 41명 총 1,350,000원

(이름순) (단위: 원)

권공범(충북 청주) 30,000	권성환(경북 안동) 30,000	권오목(경북 안동) 30,000	권재욱(서울 강북) 30,000	권태인(서울 강동) 30,000
권기동(강원 강릉) 30,000	권순직(인천 미추홀) 30,000	권오빈(강원 강릉) 30,000	권정태(경남 함천) 30,000	권혁관(경북 고령) 30,000
권기출(경기 여주) 30,000	권영구(부산 기장) 30,000	권오장(경북 안동) 30,000	권중호(전북 완주) 30,000	권혁도(경기 수원) 30,000
권기훈(서울 동대문) 30,000	권영대(적북 익산) 30,000	권오현(대구 달서구) 30,000	권주석(경북 상주) 30,000	권형남(대전 중구) 60,000
권덕근(경기 용인) 30,000	권영민(전북 익산) 30,000	권오흥(경기 군포) 30,000	권주현(인천 서구) 30,000	권희경(인천 남동구) 100,000
권도현(경북 안동) 30,000	권영범(경남 산청) 30,000	권용기(서울 강남) 30,000	권중호(강원 강릉) 30,000	
권만집(경북 상주) 30,000	권영일(충북 제천) 30,000	권원택(서울 성동) 30,000	권태갑(경북 문경) 30,000	
권병도(대구 중구) 30,000	권영혁(서울 영등포) 30,000	권윤기(대구 남구) 50,000	권태명(경북 안동) 30,000	
권성환(경기 남양주) 30,000	권오규(경북 안동) 30,000	권은영(서울 서초) 30,000	권태원(경북 예천) 30,000	

* 연간 총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안동권씨 종보> 구독 및 협찬안내

<안동권씨 종보>는 1974년 12월 1일 창간된 이후 50여 년 동안 안동권문을 대표하는 공식 기관지로서 안동권씨 가문의 전통과 문화를 비롯하여 선조들의 인문정신과 학문적 유산, 후학들의 지혜를 모아 매월 1일자로 발행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영구 보관되고 있습니다.

종보 협찬금은 1년에 3만 원이며, 종보 발전을 위해 기금이나 광고 등으로 협찬하실 분은 대중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족친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 대중회 사무처 : 02-2695-2483
- ▶ 이메일 주소 : andongkwonmun@daum.net
- ▶ 예금계좌 : 국민은행 계좌(033237-04-006772)

안동권씨 대중회